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사춘기부터 시작된다. 신장과 체중의 증가와 더불어 성적 성숙은 이 때 일어나는 신체변화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이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남자 청소년들은 사정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여자 청소년들은 초경을 경험한다. 이 무렵부터 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적응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이 결혼한 성인들에게만 허용되고 그 밖의 사람들(특히 청소년)에게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체적·심리적으로 혼란을 경험한다.

다른 사회심리적 발달특징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가 청소년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적 욕구가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그들의 성행위의 결과로 임신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의 성행동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수술이나 심대부모되기와 같은 문제 뿐만 아니라 성병의 감염과 같은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Brady, Baker, & Neinstein, 1988; Johnson, 1987), 다른 문제행동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Jakobsen, et al., 1997; Langer & Girard, 1999; Leitenberg & Saltzman, 2000)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학교나 사회차원에서 널리 실시되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성이 가지는 의미나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Paikoff & Brooks-Gunn, 1991). 현재 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성에 대한 지식, 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고 성행동에 관한 연구는 성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 비해 더욱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성에 대한 태도의 연구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실태에 관한 것들이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유형에 따라 문제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성교육 실시시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일지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어렴풋이 알고만 있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한다.

둘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조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근거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행동
2. 성과 문제행동의 관계
3. 국내 연구 동향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행동

1) 성에 대한 태도

인간의 태도는 실제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것은 많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이영숙(1995)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조사된 것이고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룬 것이므로 그것을 기초로 한국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성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그저 그렇다’가 53.4%, ‘많다’와 ‘대단히 많다’가 각각 24.8%, 9.5%이고 ‘거의 없다’와 ‘전혀 없다’가 각각 9.6%, 2.8%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학생의 경우는 청소년의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저연령화해 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거나 무관심한 경우도 있었다.

성에 대한 욕구 및 해소 방법에 대한 질문에 ‘가끔 느낀다’가 과반수 이상인 58.3%를 차지하고 있고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22.6%, ‘자주’ 그리고 ‘항상 느낀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9.1%이다. 성에 대한 욕구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한 욕구를 ‘항상’ 또는 ‘자주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배 가량 더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에 대한 욕구를 ‘항상’ 또는 ‘자주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배 가량 더 높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적 성숙과 성적 감정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데이트할 때 중·고등학생으로서 용납될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손잡는 것까지만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7.1%를 차지했고, 입맞춤하는 것이 32.9%, 포옹하는 것이 21.6% 등 성적인 접촉에 관해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성관계까지 용납된다고 하는 청소년도 8.4%를 차지했다. 여기에서도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손잡는 것, 포옹과 같은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낮고, 입맞춤, 성관계에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데이트시 신체적 접촉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성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빈도로는 '인간의 자연스런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가 전체 응답자 중 62.5%로 가장 많았고 '추하다고 생각한다'가 8.4%, '쾌락이다'가 8.9%, '생각해 본 적 없다'가 20.2%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별로 생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인간의 자연스런 발달 과정이다', '쾌락이다'라고 여기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남녀 성관계에 대해 당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 '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학생보다 더 많아 성관계에 관한 질문 자체를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의 경우보다 성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순결에 대한 의식은 '남녀 다같이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47.3%)했으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결혼 전 성관계를 갖는 것도 상관없다'와 '요즈음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가 각각 20.2%, 19.9%로 청소년 5명 중에 2명은 혼전 순결에 대해 개방적

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 ‘남자만 지켜야 한다’가 0.2%, ‘여자만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4.9%를 차지하고 있다. 순결에 대한 생각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순결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여학생의 경우 과반수 이상(57.5%)이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상관없다(11.7%)’와 ‘요즘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상당수(21.7%) 있어 여학생들의 정의식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1976년 오옥자의 연구에서 여고생들의 95%가 혼전 순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1981년 정성채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81.3%가 혼전 순결을 지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여학생들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기는 하지만(중학생 51.5%, 고등학생 43.2%) 과거에 비해 훨씬 성에 대해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 성행동

청소년기 성행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11세-24세까지의 청소년 중 0.1%에 해당하는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원식 외, 1985)에 의하면 입맞춤, 포옹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16.8%에 이르고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11.2%로 나타났다. 성교 경험자는 학생 집단에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경험자의 비율이 많아지고(중학생: 1.4%, 고등학생: 4.7%, 대학생: 17.9%), 비행 청소년들(76.1%)중 특히 성교 경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녀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재창 외, 1986)에서는 입맞춤과 포옹경험자는 7.2%, 성교경험자는 3.8%이다. 정원식 외(1985)의 연구와 성교경험자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정원식 외의 연구와는 달리 이재창 외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이영숙(1995)의 연구 결과,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중 7.5%였다. 이것은 정원식 외의 연구와는 달리 연구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식 외의 연구로부터 10여년이 지난 다음이지만 과거보다 성교 경험자가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이재창 외(1986)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1985년 3.8%에서 1995년 7.5%로 거의 두 배 정도 성경험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1,976명의 남자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6.2%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85년 정원식 외의 연구의 경우 단지 4.7%의 고교생이 성경험을 한 것에 비하면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원식 외의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이 대상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2,34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3.2%가 이성친구를 사귀어 경험하고 그 중에서 27.9%가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연문희 외, 1997). 이 연구는 특정 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의 성행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요즘의 대학생들은 정원식 외(1985)의 연구에서 보다 성관계를 가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연문희 외(1997)의 연구에서는 성관계 대상을 애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성관계 대상을 완화하면 대학생들의 성경험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국의 경우 특정 나이에 성경험을 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antrock(1996)에 의하면 15세의 경우 남자는 16.6%, 여자는 5.4%, 16세의 경우 남자는 28.7%, 여자는 12.6%, 17세의 경우 남자는 47.9%, 여자는 27.1%, 18세의 경우 남자는 64%, 여자는 44%, 19세의 경우 남자는 77.6%, 여자는 62.9%, 그리고 20세의 경우 남자는 83%, 여자는 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경험 비율은 외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외국 청소년의 성경험 비율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경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성교 경험자가 7.5%인가 11.2%인가가 아니라 청소년의 성행동 추세나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이들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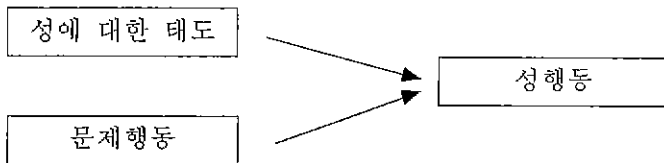
2. 성과 문제행동의 관계

성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성을 성에 대한 태도와 성행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도와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hitbeck 등(1999)은 성별에 상관없이 성행동은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남자청소년이나 여자청소년 모두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일찍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Reiss(1967)의 검사(5문항)를 통해 측정된 것인데 문항의 예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혹은 '사랑이나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1점(매우 그렇다)에서 5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또 청소년초기의 성경험은 일탈행동(Jessor & Jessor, 1977), 술과 약물남용(Yamaguchi & Kandel, 1987), 그리고 컨닝이나 흡연과 같은 덜 심각한 일탈행동(Rodgers & Rowe, 1990)과 관련있다. 다양한 일탈행동에 참가하는 것은 진보적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Rosenbaum & Kandel, 1990) 참여의 정도나 유형으로 청소년의 어느 시기에 성관계를 가질지 다

르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린 나이의 성관계는 흡연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일탈행동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다(Zabin, 1984).

뿐만 아니라 Whitbeck 등(1999)도 성행동은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사용, 약물이나 술과 관련없는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행동은 성별이나 연령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남자나 여자에 상관없이,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Jakobsen 등(1997)도 반사회적 행동이나 약물사용과 성관계 이외의 성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의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성과 문제행동의 관계

3. 국내 연구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성, 특히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외국에 비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관심에 비해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의외로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는 외국의 경우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식, 태도, 행동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강병우(1997)의 연구와 같이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같이 다루었던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성에 대한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성낙중, 1999; 최수일, 1997; 조양순, 1998), 간혹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를 같이 다룬 것이 있을 뿐이며(이성옥, 1998),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같이 다룬 연구(문인옥, 1997)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 중에서 태도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실태에 관한 것이다(김수련, 1997; 손연정, 1998). 물론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김은지(1998)의 연구에서처럼 자아존중감과 성의식의 관계를 조사한다든지 장광자(1996)의 연구에서처럼 자아정체감과 성의식의 관계를 분석해서 성에 대한 태도가 어떤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다(박소영, 1998; 이문희, 1994). 그러나 청소년의 성에 대한 심층적

이것도 구체적인 지식없이 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선행된 후 그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조사도구
3. 자료처리 및 분석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J학원에 수강 중인 242명의 중·고등학생이었다. 남학생은 115명이었고 여학생은 127명이었다. 그 중의 5명(남2, 여3)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권현주(1998) 등의 연구에서 문항을 발췌하고 연구자가 문항을 새로 첨가하여 사용했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에 관한 문항은 연구자가 개발했는데 이것은 크게 성관련 문제행동(성관계, 패팅 등)과 일반 문제행동(음주, 흡연 등)으로 나뉜다. 성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인분석을 거쳐 27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에 의하면 여기에는 보수형(9문항), 허용형(10문항), 쾌락형(8문항)의 세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도구의 신뢰도는 보수형의 경우 Cronbach의 알파계수가 .67, 허용형의 경우 .76, 그리고 쾌락형의 경우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에 관한 질문들에는 이성과의 다양한 성관련 경험이나 문제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총 2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50부를 수집하였으나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의 질문지는 자료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총 242부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빈도분석, χ^2 검증, 상관계수,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차이
3.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

요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을 조사하기 위해서 성의식에 대한 35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의 3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35개의 문항 중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것만 포함시켰다. 8개의 문항은 위의 3유형 중 어느 것과도 관련이 적어 제외시켰다. 보수형은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성이란 아이를 낳기 위해 있는 것이다” 등과 같은 9개의 문항이고, 허용형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관계는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등과 같은 10개의 문항이며, 쾌락형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이다” 등과 같은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39.39%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수형이 14.87%, 허용형이 12.98%, 그리고 쾌락형이 11.54%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의 세 가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은 대학생의 성의식 유형을 Q방법론적으로 접근한 권현주(1998)의 연구결과와 성에 대한 태도유형이 세 유형이라는 것에는 일치한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권현주(1998)는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을 개방형, 순결중시형, 애정표현의 중시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보수형은 권현주의 연구에 나타난 순결중시형과 비슷하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형에 포함되지 않은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진다”와 같은 문항이 순결중시형에서는 궁

정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성이란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다”의 문항에 대해서도 보수형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순결중시형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허용형은 권현주의 연구에 나타난 애정표현의 중시형과 비슷하다. 그러나 애정표현의 중시형에서는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나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허용형에서는 이러한 문항이 보수형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권현주 연구에서의 개방형은 본 연구의 허용형에 포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권현주의 연구와 본 연구의 유사점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이 세 가지라는 것 뿐이고, 태도유형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IV-1>에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이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다.

<표 IV-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구 분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
문항 4	.750	.4198E-03	5.110E-02
문항 31	.739	.259	4.19E-02
문항 23	.651	6.505E-02	5.36E-02
문항 6	.630	.107	2.279E-02
문항 28	.617	.206	.239
문항 11	.616	5.92E-02	.303
문항 8	.470	.367	.308
문항 30	.379	.187	.222
문항 18	.349	8.519E-02	2.99E-02
문항 14	.129	.659	.123
문항 20	6.293E-02	.606	.240
문항 26	9.110E-02	.590	.302
문항 27	.146	.552	5.54E-02
문항 2	.252	.550	.114
문항 3	.136	.532	.289
문항 19	.176	.528	.291
문항 10	1.85E-02	.499	4.217E-02
문항 13	.264	.496	9.09E-02
문항 35	.126	.413	.347
문항 32	.200	2.251E-02	.718
문항 34	.402	.118	.605
문항 17	.415	6.891E-02	.598
문항 33	.131	9.08E-02	.529
문항 25	.263	.176	.511
문항 29	9.202E-02	.150	.472
문항 21	.125	.345	.438
문항 9	.323	.106	.377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은 청소년들과의 면접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음은 청소년들을 면접한 내용 중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관련있는 것을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보수형(고1 여학생)

혼전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결혼을 약속해도 성관계는 안된다.

허용형(고1 남학생)

성관계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좋아하고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의 표현이다.

쾌락형(고1 남학생)

매춘하는 여자랑은 사랑하지 않아도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자친구랑은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 여자 인생을 망치는 것이니까. 여자는 무조건 순결해야 하고 남자는 순결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면접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이 좀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에 대한 허용성을 기준으로 보면 보수형은 결혼 전에는 남녀 모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용형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전제 하에 결혼 전에도 성관계는 가능하다고 여긴다. 한편 쾌락형은 성관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의 표현으로가 아니고 욕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유형(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세 유형 모두에 있어서 성차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에 대해 더 허용적이고 쾌락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성에 대해 더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표 IV-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의 차이

성에 대한 태도유형	남자	여자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보수형	23.56(5.01)	25.71(5.87)	-3.04	.00
허용형	41.34(4.64)	39.27(4.78)	3.31	.00
쾌락형	17.96(4.45)	14.98(3.34)	5.77	.00

이를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의 각 문항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수형

보수형의 경우 '남자도 순결을 지켜야 한다'와 '어떠한 경우라도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순결문제에 있어서 남학생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V-3> 남자의 순결준수 의무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8(7.0)	4(3.5)	31(27.0)	48(41.7)	24(20.9)	115(47.5)
여자	1(.8)	4(3.1)	14(11.0)	42(33.1)	66(52.0)	127(52.5)
전체	9(3.7)	8(3.3)	45(18.6)	90(37.2)	90(37.2)	242(100.0)

$$\chi^2 = 31.35, p = .000$$

<표 IV-4> 혼전 성관계의 금지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18(15.7)	29(25.2)	42(36.5)	20(17.4)	6(5.2)	115(47.5)
여자	9(7.1)	30(23.6)	31(24.4)	32(25.2)	25(19.7)	127(52.5)
전체	27(11.2)	59(24.4)	73(30.2)	52(21.5)	31(12.8)	242(100.0)

$$\chi^2 = 18.54, p = .001$$

(2) 허용형

성에 대한 태도유형 중 허용형의 경우, “성관계는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와 “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의 문항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성관계가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표Ⅳ-5> 성관계의 긍정적 역할 인정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5(4.3)	15(13.0)	41(35.7)	37(32.2)	17(14.8)	115(47.7)
여자	12(9.5)	29(23.0)	55(43.7)	24(19.0)	6(4.8)	126(52.3)
전체	17(7.1)	44(18.3)	96(39.8)	61(25.3)	23(9.5)	241(100.0)

$\chi^2 = 16.94, p = .002$

<표Ⅳ-6> 성에 대한 지식의 구비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5(4.4)	13(11.4)	53(46.5)	26(22.8)	17(14.9)	114(47.3)
여자	2(1.6)	20(15.7)	74(58.3)	24(18.9)	7(5.5)	127(52.7)
전체	7(2.9)	33(13.7)	127(52.7)	50(20.7)	24(10.0)	241(100.0)

$\chi^2 = 9.82, p = .044$

(3) 쾌락형

쾌락형의 문항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등의 문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었다. 호기심으로 혹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훨씬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표Ⅳ-7> 호기심과 성관계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21(18.3)	37(32.2)	34(29.6)	20(17.4)	3(2.6)	115(47.5)
여자	62(48.8)	51(40.2)	9(7.1)	5(3.9)	0(.0)	127(52.5)
전체	83(34.3)	88(36.4)	43(17.8)	25(10.3)	3(1.2)	242(100.0)

$$\chi^2 = 48.53, p = .000$$

<표Ⅳ-8> 성적 욕구충족과 성관계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24(21.1)	52(45.6)	23(20.2)	12(10.5)	3(2.6)	114(47.7)
여자	57(45.6)	50(40.0)	14(11.2)	2(1.6)	2(1.6)	125(52.3)
전체	81(33.9)	102(42.7)	37(15.5)	14(5.9)	5(2.1)	239(100.0)

$$\chi^2 = 22.56, p = .000$$

한편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도 있다. 그러한 문항을 몇 개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Ⅳ-9> 남녀관계에 있어서 성의 중요성 정도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12(10.4)	43(37.4)	35(30.4)	18(15.7)	7(6.1)	115(47.5)
여자	27(21.3)	54(42.5)	29(22.8)	12(9.4)	5(3.9)	127(52.5)
전체	39(16.1)	97(40.1)	64(26.4)	30(12.4)	12(5.0)	242(100.0)

$$\chi^2 = 8.54, ns$$

<표 IV-10> 혼전 성관계에 대한 비난여부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13(11.4)	30(26.3)	37(32.5)	22(19.3)	12(10.5)	114(47.3)
여자	14(11.0)	40(31.5)	27(21.3)	24(18.9)	22(17.3)	127(52.7)
전체	27(11.2)	70(29.0)	64(26.6)	46(19.1)	34(14.1)	241(100.0)

$$\chi^2 = 5.37, ns$$

<표 IV-11> 애정표현으로서의 피부접촉에 대한 찬성여부

성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남자	2(1.8)	3(2.7)	18(15.9)	60(53.1)	30(26.5)	113(47.1)
여자	1(8)	5(3.9)	30(23.6)	72(56.7)	19(15.0)	127(52.9)
전체	3(1.3)	8(3.3)	48(20.0)	132(55.0)	49(20.4)	240(100.0)

$$\chi^2 = 6.60, ns$$

2)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들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흡연, 노래방출입, 그리고 PC방 출입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PC방을 출입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노래방을 더 많이 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12> 성별 문제행동의 차이

문제 행동	남자	여자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이성친구	2.18(.98)	2.25(.94)	.497	.620
술	2.45(1.04)	2.38(.91)	.590	.556
담배	1.50(.85)	1.28(.72)	2.158	.032
노래방	3.39(.92)	3.84(.49)	-4.665	.000
비디오방	1.36(.74)	1.22(.55)	1.612	.108
가출	1.11(.39)	1.07(.31)	.912	.362
손잡기	2.43(1.07)	2.61(.97)	-1.376	.170
포옹하기	1.61(.93)	1.62(.89)	-.114	.909
입맞추기	1.38(.82)	1.29(.69)	.937	.350
페팅	1.19(.53)	1.08(.39)	1.869	.063
성관계	1.06(.30)	1.03(.28)	.782	.435
원조교제	1.02(.13)	1.02(.12)	.100	.921
디스코텍	1.28(.67)	1.32(.68)	-.451	.652
PC방	3.71(.65)	3.31(.92)	3.915	.000
폰팅	1.39(.82)	1.43(.78)	-.328	.743
채팅(만남)	2.23(1.16)	2.21(1.10)	.093	.926

3.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

1) 전체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그들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라 문제행동의 관계에 차이를 보였다.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경우 이성과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께팅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성과 관련된 행동을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보수형의 청소년일수록 채팅으로 이성을 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술, 담배, 비디오방 출입, 디스코텍 출입과 같은 행동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경우에는 이성친구를 사귀거나 이성과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맞추고 께팅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이것은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성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청소년일수록 채팅으로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디스코텍 출입, PC방 출입, 술, 흡연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성에 대해 쾌락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성과 포옹하고 입맞추고 께팅을 하고 성행위하는 것과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쾌락형의 청소년들일수록 이러한 성관련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해 쾌락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일수록 폰팅을 더 많이 하고 담배를 더 많이 피고 비디오방에도 가지만 노래방에는 적게 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형인 청소년들일수록 문제행동을 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허용형이나 쾌락형의 청소년들일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많이 있다. 우선 성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라 문제행동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보수형일수록 성관련 행동이나 문제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성관련 행동을 덜 하고 문제행동도 덜한다. 그러나 허용형일수록 보수형과는 정반대로 성관련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쾌락형의 경우에도 성관련 행동이나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 채팅으로 이성친구 사귀기, 손잡기와 같은 행동들은 허용형의 경우에는 상관이 있지만 쾌락형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다.

둘째, 성에 대한 태도유형은 성관련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었고 그 관계는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각기 다른 관계에 있었다.

셋째, 가출과 원조교제는 성에 대한 어떠한 태도유형과도 관계가 없었다.

넷째, 성에 대한 태도유형이 허용형이나 쾌락형인 경우 성관련 문제행동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벼운 성행동의 경우에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폰팅은 성에 대한 태도유형 중에서 단지 쾌락형과만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쾌락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폰팅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V-13>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전체)

문제행동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
이성친구	-.097	.155*	.079
페팅	-.220**	.187**	.221**
성행위	-.152*	.165**	.141*
원조교제	-.102	.153	.051
디스코텍	-.151*	.117	.068
PC방	-.080	.133*	.026
폰팅	-.008	.127	.150*
채팅/만남	-.151*	.206**	.059
술	-.197**	.261**	-.017
담배	-.164*	.186**	.209**
노래방	-.006	.052	-.174**
비디오방	-.185**	.115	.175**
가출	-.071	.045	.115
손잡기	-.181**	.224**	-.014
포옹하기	-.210**	.239**	.141*
입맞추기	-.241**	.263**	.170**

* $p < .01$, ** $p < .001$

2) 성별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전체대상자로 보았을 때와 남녀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첫째, 전체 청소년의 경우 보수형은 성행위 등 성관련 문제행동과 술, 담배 등 일반 문제행동과 대부분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전체 청소년의 경우와 이 두 변인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관련 문제행동과는 관련이 비교적 있지만 일반 문제행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관련 문제행동

과의 관계도 그 내용면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소 달랐다. 보수적인 남학생은 손잡기, 포옹하기, 입맞추기, 패팅과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보수적인 여학생은 손잡기, 패팅, 성행위, 원조교제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허용형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양한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조교제와 가출의 경우 그러하다.

셋째 남녀 모두 쾌락형보다 허용형이 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넷째 남학생은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성행위가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보수형인 경우에는 부적 상관, 그리고 허용형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남학생)

문제 행동	보수형	허용형	패락형
이성 친구	-.160	.113	.065
패팅	-.221*	-.054	.237*
성행위	-.144	-.028	.160
원조교제	-.015	-.055	.108
디스코텍	-.323**	.231*	.013
PC 방	-.018	.126	-.224*
폰팅	-.137	.010	.256**
채팅/만남	-.177	.219*	-.052
술	-.268**	.171	-.138
담배	-.273**	-.004	.161
노래방	-.052	.247*	-.083
비디오방	-.293**	.043	.122
가출	-.028	-.137	.120
손잡기	-.226*	.346**	-.030
포옹하기	-.276**	.156	.157
입맞추기	-.331**	.107	.117

* $p < .01$, ** $p < .001$

<표Ⅳ-15>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여학생)

문제행동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
이성친구	-.056	.213*	.125
패팅	-.189*	.423**	.125
성행위	-.197*	.333**	.095
원조교제	-.197*	.346**	.018
디스코텍	-.027	.042	.169
PC방	-.064	.074	.037
폰팅	.091	.247**	.066
채팅/만남	-.129	.194*	.195*
술	-.124	.339**	.105
담배	-.011	.330**	.190*
노래방	-.100	-.070	-.071
비디오방	-.038	.157	.189*
가출	-.092	.214*	.069
손잡기	-.181*	.164	.074
포옹하기	-.159	.332**	.155
입맞추기	-.140	.411**	.223*

* $p < .01$, ** $p < .001$

V. 교육적 시사점 및 결론

V. 교육적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보수적이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허용적이거나 쾌락적이었다. 이것은 성교육 실시시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하여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남학생의 경우 사랑과 성행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쾌락형)이 여학생보다 강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때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성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의 각 문항을 빈도분석한 결과,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의 각 문항에 따라서는 성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성차가 없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이 어느 것이든 간에 남녀 모두 어떤 면에서는 성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피부접촉은 애정의 표현이라든가 혼전 성관계의 비난여부라든가 성의 자연스러움 혹은 중요성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보면, 보수형일수록 문제행동을 덜하고 허용형이나 쾌락형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성과 관련된 발달과업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적 행위를 통합하는 것이다(Sullivan, 1953). 이것은 성과 친밀감 혹은 사랑을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성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허용적인 태도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가져야 할 것은 허용적인 태도지만 문제행동과의 관련을 고려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완수해야 할 발달과업이라는 주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들과 문화가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의 연구에서는 혼전성관계에 대한 허용성(permissiveness of premarital sex)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용어와 본 연구의 성에 대한 태도 중 하나인 허용형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의 경우 혼전성관계에 대한 수용여부만이 기준이고 본 연구의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의 다른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혼전성관계에 대한 허용성에는 본 연구의 허용성과 쾌락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혼전성관계를 허용하는데 있어서 사랑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가능하느냐 등의 질문을 통하여 개인이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용이라는 단어가 둘 다 포함되어 있으나 의미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주의가 요청된다.

넷째, 성에 따라 문제행동의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단지 흡연, 노래방 출입, 그리고 PC방 출입에만 차이가 있었다. 노래방과 PC방이 비교적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행동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단지 흡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성관계나 패팅 등의 성관련 문제행동이나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성관련 문제행동은 다른 비행과도 관련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Whitbeck 등, 1999)를 고려하면 요즘 여자청소년의 비행율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율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이기헌, 1998)는 주장이 실감이 난다.

다섯째, 성에 대한 태도는 성관련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고 일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성에 대한 태도가 성관련 문제행동과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성에 대한 태도는 성관련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성관련 문제행동은 일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Whitbeck등(1999)은 성관련 문제행동과 성과 관련없는 문제행동 간에는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일탈행동은 청소년의 초기 성경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여섯째, 여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원조교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본 연구의 허용적인 성태도는 허용이라는 용어가 다소 혼란을 주기는 하지만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쾌락형일수록 원조교제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결과는 매우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자의 경우 성을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남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조성연 등(2000)에 의하면 여자청소년이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를 성적 탐닉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여자가 청소년기에 성적 탐닉에 빠질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본다. Miles(2000)은 스리랑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들은 성인과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곱 번째, 성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이거나 쾌락적일 경우 모두 성관련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허용형과 쾌락형이 성관련 문제행동과 관련해서 볼 때 차이가 없다고 생

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허용형인 경우에는 성관련 문제행동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손잡기와만 상관이 있고 나머지와는 관련이 없는 반면 쾌락형인 경우에는 성관련 문제행동 중에서도 비교적 심각한 패팅과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학생과 반대의 패턴이 나타난다. 즉 허용형일수록 포옹하기, 입맞추기, 패팅, 성행위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쾌락형은 성관련 문제행동 중에서 단지 입맞추기와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에는 남녀의 차이가 있고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에도 성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허용형의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요즘 새로운 청소년문제로 등장한 원조교제가 여학생들의 허용적인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학생의 원조교제의 대책수립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병우(1997). 광주보건대학생의 성의식에 대한 고찰: 지식·태도·행위를 중심으로. 광주보건논문집, 22, 187-215.
- 권현주(1998).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1995). 대학생의 사랑에 대한 태도와 성의식. 전남대가정과학연구, 5, 119-132.
- 김수련(1997).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1998).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의식과의 관계 연구: 제주지역 여고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 심혜숙(1990). 성격유형검사의 한국 표준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3(1), 44-72.
- 김진엽(1996). 고교생의 문제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가족계획협회(1996). 남자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 성문화연구소.
- 도로교통안전협회(1996). 폭주족과 교통안전 대책 연구. 서울: 도로교통안전협회.
-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1998).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성의식, 성행동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낙중(1999). 고교생의 성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연정(1998). 중등학생의 성의식 및 성교육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덕 외(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연문희 등(1997). 연세대학교 재학생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연세상담연구, 13, 91-125.
- 유혜련(1998). 기독교학생과 비기독교학생들의 이성교제 및 성의식에 관한 가치관 비교연구: 남녀고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현(1998). 한국청소년비행의 현황과 대책. 한중문화와 현대화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중국 북경대학교.
- 이문희(1994).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성교육 실시의 타당성과 성교육 지도방향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1995).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창 외(1986). 청소년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연합회.
- 장광자(1996).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199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성연 · 이용교 · 방은령(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2, 99-116.
- 조양순(1998). 비행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일(1997).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199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

- 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청소년 육성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I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소(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소.
- 홍문식 외(1984). 미혼 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조사, 한국인구보건원.
- Anne, G. et al.(1997). *Sexuality Education and Young People's Sexual Behavior: A Review of studi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4), 421-453.
- Bente, T. & Ingela, L.K.(1996). *Sexual Socialization and Motive for Intercourse Among Norwegian Adolesc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5(3), 289-302.
- Brent, C.M., Maria, C.N., Xitao, F., Cynthia, R.C.(1998). *Pubertal Development, Parental Communication, and sexual Values in Relation to Adolescent Sexual Behavior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1), 27-52.
- Chair, W.F.(1998).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ex knowledge and attitude test for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Darcy, A.S, Deanna, M. & Vivek, K.(2000). *Measuring Peer Pressure, and Conform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Predicting School Performance, Sexual Attitudes,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163-182.
- de Gaston, J.F., Jesen, G. & Weed, S.(1995). *A Closer Look at Adolescent Sexual Activ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4), 465-479.

- De Marzo, J.M.(1998).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in metropolitan New Y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 Glynis, M.B. & Lynne, J.M.(1997). *Sexual self-concept and sexual risk-taking*. Journal of Adolescence, 20, 29-41.
- Harkless, L.E.(1998). *Biological sex and sexual orientation as factors in relationship patterns: A study of love, sex, friendship, and gen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Harold, L., Heidi, S.(2000). *A Statewide Survey of Age at First Intercourse for Adolescent Females and Age of Their Male Partners: Relation to Other Risk Behaviors and Statutory Rape Implication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9(3), 203-215.
- Jakobsen, R., Rise, J., Aas, H., & Anderssen, N.(1997). *Noncoital sexual interactions and problem behaviour among young adolescents: The Norwegian longitudinal health behaviour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0, 71-83.
- James, R.B. et al.(2000). *Sexual Motives, Gender, and Sexual Behavior*.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9(2).
- Jessor, S.L. & Jessor, R.(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New York: Academic Press.
- Jhon, M.T.(1995). *Sex Without Emotional Involvement: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Sex Differenc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4(2), 173-206.
- John, D.B., Janice, I.B.(1997).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Interest*.

-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2), 181-210.
- Johnson, J.(1987).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adolescents*. Adolescent Medicine, 14(1), 101-120.
- Kathleen, F., Anne, N.(2000). *Patterns of Union Formation Among Urban Minority Youth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9(2), 177-188.
- Lilly, M.L. & Chris, G.(1999). *Risky Sexual Behaviors among Substance-Abusing Adolescents: Assessing the Effect of Decision-Making and Avoidance Mo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7, 327-348.
- Martin, S.W., Ilsa, L. & Frances, M.S.(2000). *Sociocultral Correlates of Permissive Sexual Attitude: A Test of Reiss's Hypotheses About Sweden and the United Stst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7(1), 44-52.
- Miles, G.M.(2000). *"Children don't do sex with adults for pleasure": Sri Lankan children's views on sex and sexual exploitation*. Child Abuse & Neglect, 24, 995-1003.
- Paikoff, R.L. & Brooks-Gunn, J.(1991). *Pregnancy, interventions to prevent*. In R.M. Lerner, A.C. Peterse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Vol.2). NY: Garland.
- Reed, R.L.(1998). *Image and attitude: The impact of media images on the self-esteem, body image and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 Reidar, J., Jostein, R. Henrik, A. & Norman A.(1997). *Noncoital Sexual interactions and problem behaviour among young adolsecents: The Norwegian Longitudianl Health Behaviour*

-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0, 71-83.
- Robert, B.(1997). *Psychological Correlates of Mal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eriences with Adults: A Review of the Nonchincinal Literatur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2), 105-141.
- Rodgers, J.L. & Rowe, D.C.(1990).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d mildly deviant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11, 274-293.
- Rosenbaum, E. & Kandel, D.B.(1990). *Early onset of adolescent sexual behavior and drug invol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7, 521-530.
- Santrock, J.W.(1996). *Adolescence*. Dubuque, IA: Brown & Benchmark.
- Song, E.Y.(1998). *A statistical synthesis of sexuality education studies, 1960-1997: A meta-analysis approach(adolescent sexuality, program evalu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 & M University.
- Sprecher, S. & Hatfield, E.(1996). *Premarital sexual standards among U.S. college students: Comparison with Russian and Japanes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5, 261-287.
- Susan, S., Elaine, H.(1996). *Premarital Sexual Standards Among U.S. College Students: Comparison with Russian and japanes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5(3), 261-287.
- Sullivan, H.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 Taris, T.W., Semin, G.R.(1997). *Gender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the Love Motive and Relational Context on Sexual Experienc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2).

- Whitbeck, L.B., Yoder, K.A., Hoyt, D.R., & Conger, R.D.(1999).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1, 934-946.
- Whitbeck, L.B., Yoder, K.A., Hoyt, D.R., Conger, R.D.(1999).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1(4), 934-947.
- Yamaguchi, K. & Kandel, D.(1987). *Drug use and other determinants of premarital pregnancy and its outcome: A dynamic analysis of competing life ev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57-270.
- Zabin, L.(1984).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and sexual behavior among teens in U.S. contraceptive clinic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 261-263.

부 록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지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기는 고민과 갈등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동시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성에 대해서만은 유독 폐쇄적이기 때문에 톱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성인들 사이에는 원만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여러분이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에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앞으로 청소년의 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안은 컴퓨터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6월

명지대학교 조아미 교수

I. 성에 대한 태도

※ 다음의 문항을 읽고 오른쪽의 보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에 V표 하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낙태수술을 해도 괜찮다.	5	4	3	2	1
2. 성은 지저분하고 불결한 것이다.	5	4	3	2	1
3. 성관계는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5	4	3	2	1
4.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5	4	3	2	1
5. 돈이나 선물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5	4	3	2	1
6.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5	4	3	2	1
7. 피임법에 관한 성교육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5	4	3	2	1
8.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	5	4	3	2	1
9.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5	4	3	2	1

문 항	매 우 그 렇 다	그 렇 다	그 저 그 렇 다	아 니 다	전 혀 아 니 다
10.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이다.	5	4	3	2	1
11.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5	4	3	2	1
12. 요즈음의 성문화는 개방적이다.	5	4	3	2	1
13.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5	4	3	2	1
14.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4	3	2	1
15.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	5	4	3	2	1
16. 파다노출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 욕구를 유발한다.	5	4	3	2	1
17.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5	4	3	2	1
18. 성이란 아이를 낳기 위해 있는 것이다.	5	4	3	2	1
19.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5	4	3	2	1

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20. 남자는 성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	5	4	3	2	1
21.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5	4	3	2	1
22.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5	4	3	2	1
23. 성교육을 할 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5	4	3	2	1
24. 성교육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4	3	2	1
25. 여자는 성적 표현을 수동적으로 해야 한다.	5	4	3	2	1
26. 여자는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	5	4	3	2	1
27. 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4	3	2	1
28.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결혼하기 전에도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다.	5	4	3	2	1
29. 남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이다.	5	4	3	2	1
30. 상대방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다.	5	4	3	2	1

문 항	매 우 그 렇 다	그 렇 다	그 저 그 렇 다	아 니 다	전 혀 아 니 다
31. 어떠한 경우라도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	5	4	3	2	1
32.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진다.	5	4	3	2	1
33.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5	4	3	2	1
34. 성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다.	5	4	3	2	1
35.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당연한 것이다.	5	4	3	2	1

II. 인적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_____ 학년

3. 학교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Ⅲ. 청소년의 경험

※다음의 문항을 읽고 자신이 경험한 정도와 가장 가까운 것에
V표 하십시오.

문 항	많이 있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 이성친구와 사귀어 본 경험	4	3	2	1
2. 술을 마셔본 경험	4	3	2	1
3. 담배를 피워본 경험	4	3	2	1
4. 노래방에 가본 경험	4	3	2	1
5. 비디오방에 가 본 경험	4	3	2	1
6. 가출해 본 경험	4	3	2	1
7. 이성과 손을 잡아 본 경험	4	3	2	1
8. 이성과 포옹해 본 경험	4	3	2	1
9. 이성과 입맞춘 경험	4	3	2	1
10. 이성과 패팅해 본 경험	4	3	2	1
11. 이성과 성관계를 가져 본 경험	4	3	2	1
12. 원조교제를 해 본 경험	4	3	2	1
13. 나이트클럽에 가 본 경험	4	3	2	1
14. PC방에 가 본 경험	4	3	2	1
15. 폰팅해 본 경험	4	3	2	1
16. 채팅으로 이성을 만나본 경험	4	3	2	1